

## 민간부문 지원, GCF 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주 바베이도스에서 열리는 중요한 GCF 이사회의는 지난 달 기후재정 분야에 있었던 진전을 바탕으로 결실을 볼 수 있다.

### ○ 기후정상회의(9.23) 에서 기후재정관련 선언

1.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연합(Portfolio Diversification Coalition)**을 설립하여 2015년까지 1 천억 달러 투자에 대해 탈탄소화를 달성하기로 함
2. 세계 **최대 연기금** 일부가 2020년 까지 저탄소 투자를 3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함
3. 글로벌 투자자금의 1/3을 운용하는 몇몇 대형 **보험협회**가 2020년까지 기후관련 투자를 10배 증가시켜 4천2백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함
4. 총 24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투자연합**이 탄소가격과 저탄소 정책,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enabling framework) 자금지원에 대해 지지를 표명
5. 일단의 주요 **상업은행**이 2016sus 전에 3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린본드(녹색채권) – 및 기타 “녹색” 금융수단 – 발행을 공동으로 약속함
6.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전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고영향(high-impact)투자로 최소 100억 달러를 촉진할 **촉매금융이니셔티브(Catalytic Finance Initiative)**를 발족함

### ○ 바베이도스 이사회 중요 이슈

1. GCF 초기 재원조성 활동 절차에 관한 최종 결정
2. GCF 민간부문자문그룹(PSAG)권고 수용
  - 신용보증, 보험, 양허성 차관, 지분투자 등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민간투자 촉진방안 마련해야

### ○ 민간부문 역할

정책적 확실성과 올바른 수단,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민간부문의 투자는 GCF 의 성공 뿐 아니라 신기후협약의 성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 [번역\_민간부문 지원 GCF 성공에 필수]

**2014.10.13, Katie Sullivan /** 기업 관점에서 볼 때, 기후재정과 탄소가격 문제는 지난 달 뉴욕 시에서 열렸던 UN 기후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안이다.

기후정상회의에서 기후재정분야 핵심은 녹색재정, 녹색규제프레임워크, UN 녹색기후기금(GCF)공약 이라는 폭넓고, 상호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공식 세션이었다.

9.23 기후정상회의가 끝나고, 세계은행 김용 총재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청정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다”고 기후재정 세션을 잘 요약해주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기후재정 선언들과 약속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1.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연합(Portfolio Diversification Coalition)**을 설립하여 2015년까지 1천억 달러 투자에 대해 탈탄소화를 달성하기로 함
2. 세계 **최대 연기금** 일부가 2020년 까지 저탄소 투자를 3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함
3. 글로벌 투자자금의 1/3을 운용하는 몇몇 대형 **보험협회**가 2020년까지 기후관련 투자를 10배 증가시켜 4천2백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함
4. 총 24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투자연합**이 탄소가격과 저탄소 정책,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enabling framework) 자금지원에 대해 지지를 표명
5. 일단의 주요 **상업은행**이 2016sus 전에 3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린본드(녹색채권) – 및 기타 “녹색” 금융수단 – 발행을 공동으로 약속함
6.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전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고정향(**high-impact**)투자로 최소 100억 달러를 촉진할 **촉매금융이니셔티브(Catalytic Finance Initiative)**를 발족함

### 떠오르는 GCF

이번 정상회의에서 몇몇 정부는 신생 국제기구이자 앞으로 잠재력이 큰 GCF에 약 13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한국,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약속한 반면,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국인 프랑스는 4년에 걸쳐 1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이미 10억 달러 공여를 발표한 바 있다.

개념정립에서 운영단계로 전환하면서, GCF에는 이제서야 그간 부족했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힘겨웠던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제안된 GCF는 2020년 기후재정으로 연 1000억 달러를 조성하여 배분한다는 약속의 핵심 메커니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기금이 그러한 야심찬 목표를 현실화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분명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GCF의 성장을 지켜봐 온 이들 사이에서는, 머지않아 GCF의 잠재력이 꽃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특히 송도 사무국과 민간부문기구(PSF)에 직원들이 총원되고, 사업모델 프레임워크 결정이 명확해졌으며, 초기 공적 기여자본금이 감축, 적응 개발 기회에 대한 민간 자본과 투자를 촉진하도록 스마트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바베이도스 이사회의

24명의 이사로 구성된 GCF 이사회는 10월 14-17일까지 바베이도스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번역\_민간부문 지원 GCF 성공에 필수]

수도 브릿지타운(Bridgetown)에서 열리는 이번 이사회에서, 민간부문 참가자 비롯한 많은 이들은 GCF 가 앞으로 수주, 수개월, 수년 동안 상당량의 공적 및 민간자본 유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시할지를 염두해두고, 다음의 중요한 이슈를 특히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첫째, 이사회는 GCF 의 초기 자원조성 활동 절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결정사항들은 11 월 19~20 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 1 차 공식 GCF 재정공여회의 전에는 승인될 필요가 있다.

제 1 차 “재정공여회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기후재정 공약이 나오는 동시에 기후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조치들이 더욱 발전되고, 리마 당사국총회까지 순조롭게 (협력적으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UN 관계자들은 12 월 1 일 리마에 기후 협상가들이 모이기 전, GCF 가 초기 공약금으로 약 100~150 억 달러를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둘째, 이번 이사회회의에서는 이사회 위원들이 GCF 민간부문자문그룹(PSAG)의 권고를 숙고해볼 것이다.

9 월 초 PSAG 위원들은 GCF 의 PSF 가 예측된 결과를 수반한 상업적 성격의 수단과 전략을 채택해야만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신용보증, 보험, 양허성 차관, 지분투자 등이 그 예이다. PSAG 의 작업과 권고안이 바베이도스 이사회에서 수용되어, 이사회가 PSF 와 GCF 투자결정 및 운영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대담하게 채택되기를 바란다.

### 민간부문 역할

일각에서는 민간부문이 GCF 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지만, 올바른 인센티브와 정책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UN 청정개발체제(CDM)의 경험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2013 년 말, CDM 집행위원회는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실제적, 실증적 프로젝트에 총 3,150 억 달러 투자가 민간부문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산했다.

정책적 확실성과 올바른 수단과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GCF 도 진짜 변혁적인 수준의 기후재정을 마련할 물꼬를 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탈탄소화, 회복력에 대한 투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기후협약의 성공 역시 그러한 재정지원과 투자에 달려있다.

11 월 GCF 재정공여회의는 12 월 UN 리마 당사국 총회 전에 올바른 정치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리마에서는 2015 년 파리에서 마련될 신기후협약의 개략적인 협상 초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리마 당사국 총회 전에 수십억 달러를 조성한다는 GCF 공약을 지키기 위한 현재진행형 노력은 뒤이은 협상들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형성하고, 2015 신기후협약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도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글쓴이 = Katie Sullivan 국제배출권거래제협회(IETA) 북미 및 기후재정 국장**

출처 = <http://www.rtcc.org/2014/10/13/private-sector-backing-could-transform-uns-green-climate-fund/>